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5. 5. 16.(금) 14:00

재외동포청, '꿈너머장학금' 받은 국내 체류 고려인 학생 격려

- 사단법인 너머, 고교생 및 대학생 등 20명에게 연간 7천 2백만원 장학금 지원
- 이기성 정책국장 수여식서 “동포청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응원하고, 각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·지지할 것” 언급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린 사단법인 너머(이사장 신은철)에서 주최한 ‘제4회 고려인꿈너머장학증서 수여식’에 참석해 수여자들을 격려했다.
- (사)너머가 2021년부터 시행중인 「고려인꿈너머장학사업」은 SDB인 베스트먼트(주)의 지정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고려인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거주 고려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20명에게 연간 7천만원 규모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.
※ 2025년 장학금 선발인원 : 고교생 5명, 대학생 15명
- 이 단체는 2011년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상호협력의 목적으로 설립되어, 성인한국어수업, 초등저학년 돌봄 및 방과후 교실, 상담소 운영, 통번역행정 지원, 전국고려인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 고려인의 국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.
 - 아울러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및 무국적 고려인에 긴급 생계비, 생필품,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.
- 신은철 (사)너머 이사장은 “후원자분들께 감사하며, 이 소중한

귀한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장학생들이 배움에 정진하고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.” 고 전했다.

- 후원자 유복순 시크리티스 대표는 “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장학금이 한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.” 고 격려했다.
- 이기성 국장은 장학생에 선발된 고려인 학생들을 축하하면서 “정부를 대신해 매년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, 동포청도 동포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- 장학생 대표로 천 미엘라 학생은 후원기관에 “국내체류 고려인 학생들은 민간장학금 외의 장학제도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, 이 후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위로와 응원이 된다면서,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성장해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” 고 인사를 전했다.
-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유복순 시크리티스 대표,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,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, 김효진 경기공동모금회 사무처장, 대한고려인협회 등이 참석하여 고려인 학생들을 축하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이규현	032-585-3172
		담당자	사무관	오은아	032-585-3176